

치 사

오늘 우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종립 동국대학교가 마침내 국제선센터를 개원하게 되니,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가 또다시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랑스러운 동문 총장을 새로 모신 동국대학교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제2건학운동의 실천사업으로 내걸고, 그 첫 걸음으로 국제선센터를 개원하게 된 것은 종단적으로도 각별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원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사장 정련 스님과 김희옥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선센터 개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선원장으로 취임하는 안국선원의 수불스님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제선센터의 선원장에 취임하는 수불스님은 20여 년간 간화선의 대중화에 온 정성을 기울인 경험으로, 앞으로 동국대학교를 세계적인 간화선 수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실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이 시절 인연들을 생각하면 국제선센터의 개원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화선은 전통적인 수행양식으로서 한국불교의 정통 선맥을 오늘날까지 잘 이어오게 한 불교문화의 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 불자들이 체험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간화선을 재가불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한 수불스님의 그간의 공적을 통하여, 앞으로 국제선센터가 종단이 추진하는 한국불교 세계화에 역할과 기여를 다할 것으로 종도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논리와 물질편리의 시대를 따르면서도, 명상과 참다운 삶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경쟁이 주는 압박감과 첨단문명의 속도전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삶을 희망하는 인성적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가 올바른 수행방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중심역할을 해준다면, 인류사회를 향한 더없이 큰 보시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뜻 깊은 개원이 있기까지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단은 동국대학교와 국제선센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8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